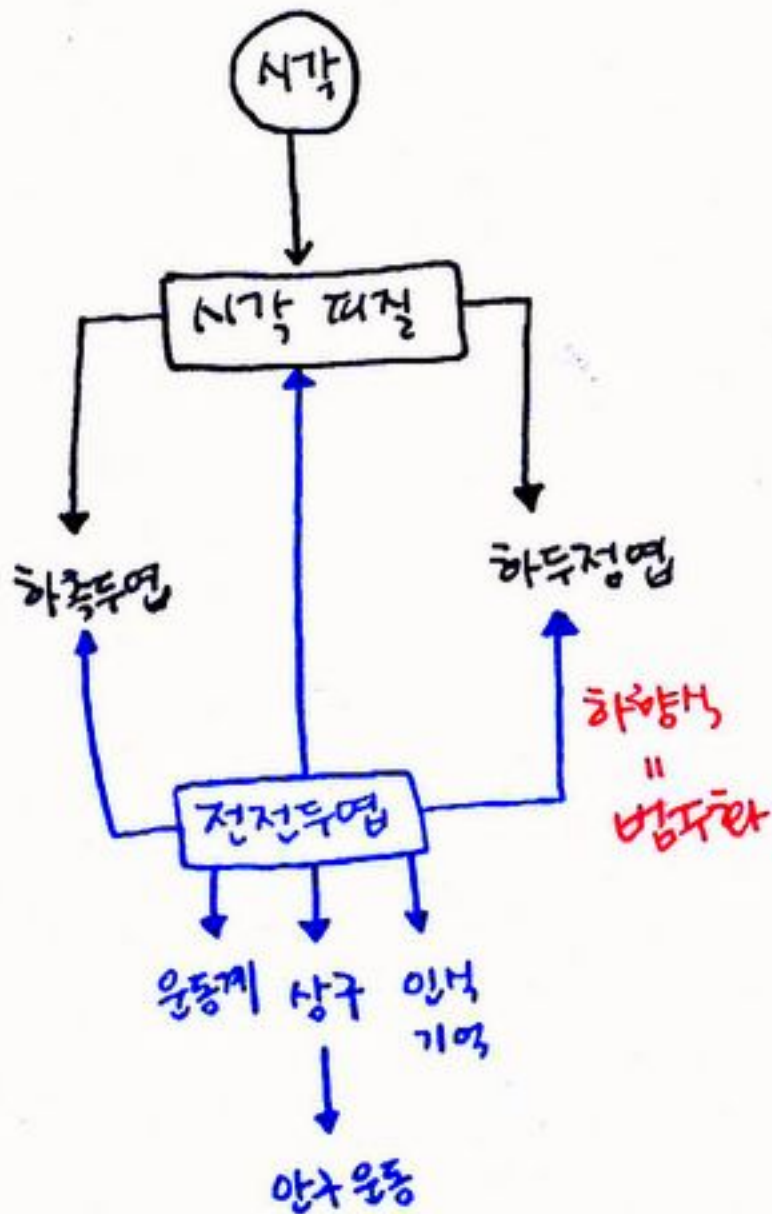


제 4회 특강한 4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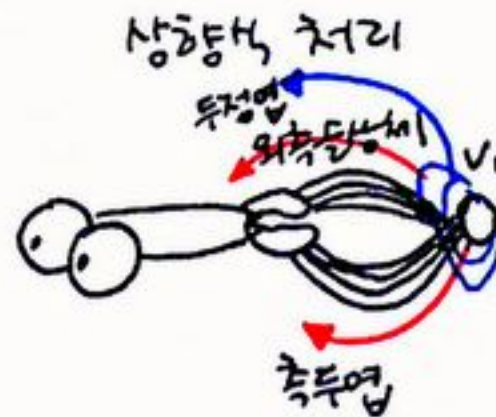
9강, 2012. 11. 18

* 대뇌피질
⇒ 기억, 언어

제 3회는 뇌생리학 중심으로 강의 되었다. 제 4회는 뇌의 구조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래서 뇌의 구조물을 말하면 듣는 사람은 구조물이 이미지로 떠올라야 한다. 뇌과학에서 떠오르지 않으면 "모른다"이다. Science는 정량화된 뇌기이다.



상측두엽 기억과 하측두엽 기억이 있다.
처리 처리



눈 → 시각 자극 → $V_1 \rightarrow V_2 \rightarrow V_3$ → 두정엽 / 하두정엽

(해상도)
시각적 이미지의 처리는
무한대에 가깝다.

하측두엽

전두엽 → 감각영역

청각 : 상측두엽

소리 → 의미

하측두엽

단어 → 발음

기억으로 사물을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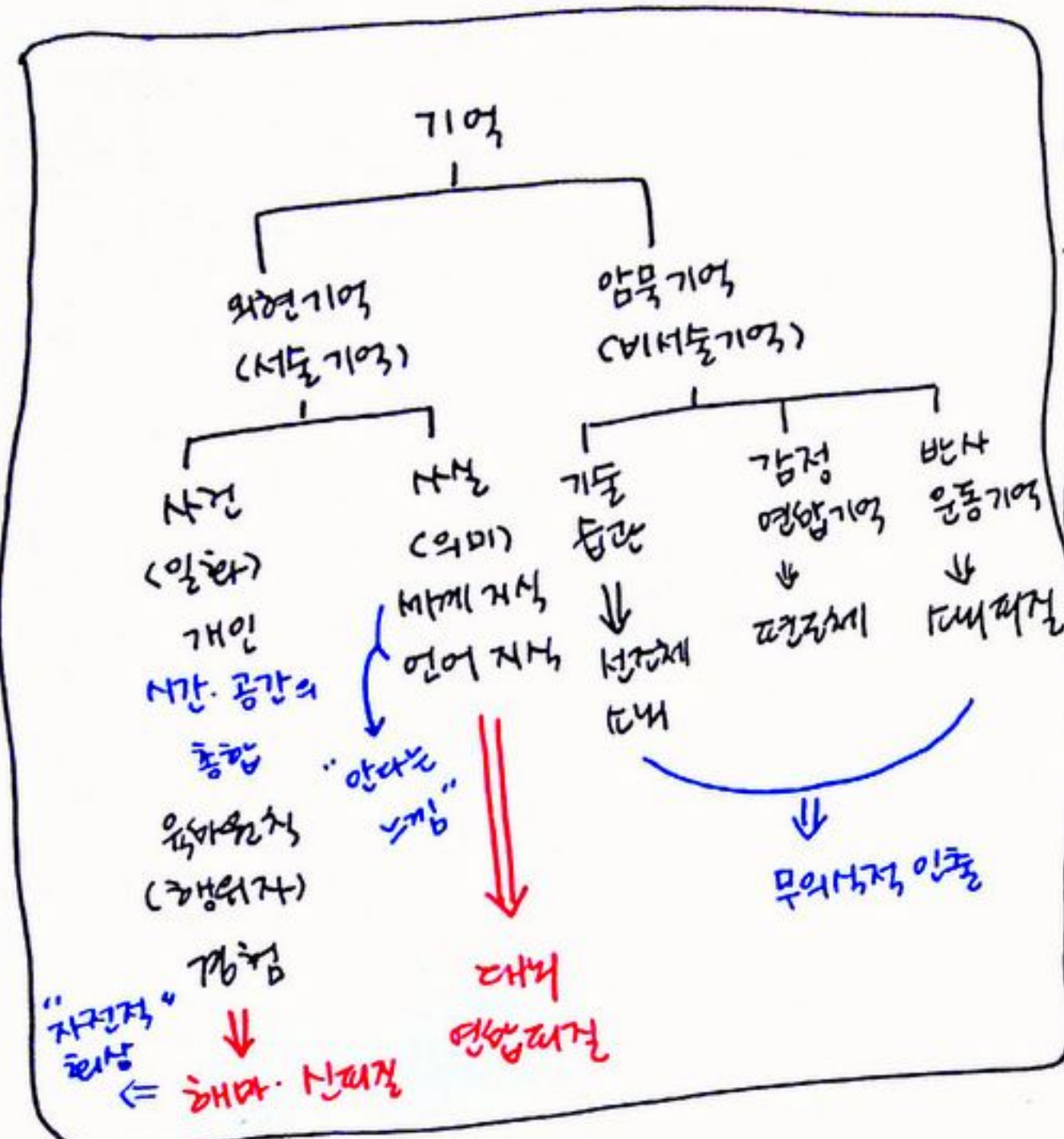
이전과 달리 이제 기억할 때 이전과 달리 기억력이



동작하면 작동 X



예측에서 벗어나면 attention이
작동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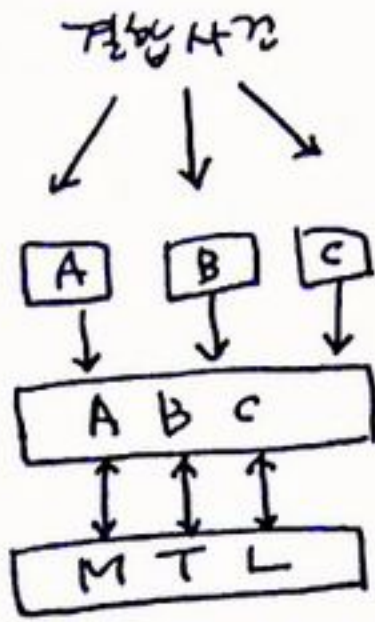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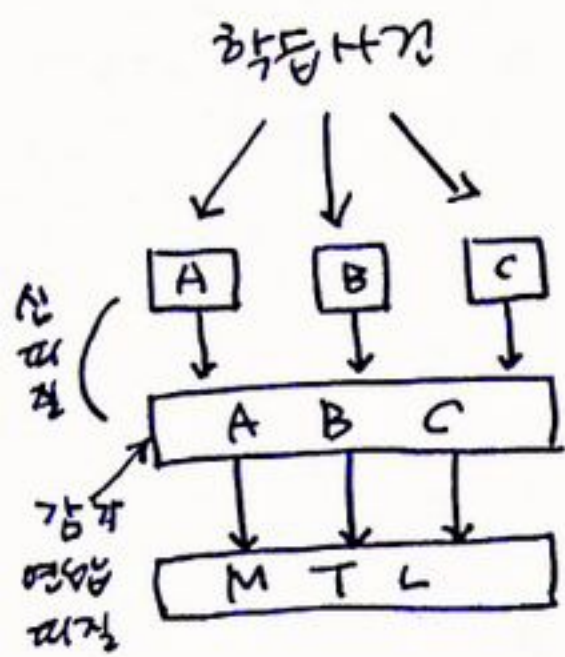
현상
예제인 30%
기능인 70%
Human technique 90%
Human Anticipation 80%

일화 (사건) = 의미
기억
일화기억이 사실을 만든다.
사람의 기억 능력이 다른 이유는 인종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건이 "공통된 사실"이 모여 사실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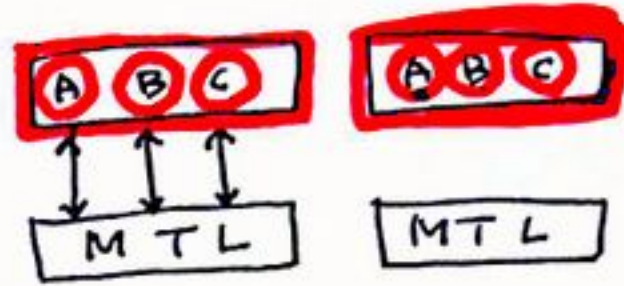
행위 처리는 모두 범주화된 것이다.
행위 = 범주화
: 언어 이전에 만들어 진다.
지각 개념 진다.
사실 기억은 사회적으로 범주화된 다. 의미는 사회 중 "타자"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행위를 따라하는 것은 목적을 따르는 것이다.
따라하기의 본질은 목적을 따라하는 것이다.
정신분석은 자기 자신의 행위를 명명하는 "행위자"가 있다고 착각한다. 자기 자신의 명명이라고 무의식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행위자가 하는 명명이라고 여긴다.
이것이 "행위"의 본질이다.
행위는 고대시 타이틀과 같은 행위를 관찰하여 행동하고
정신분석은 자신의 명명을 듣는다.

- Moscovitch theory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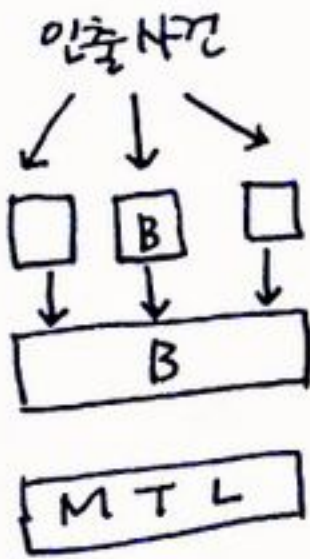


Consolidation
경화 신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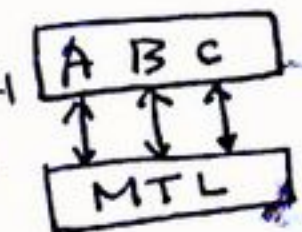


가상에서 오는 해마의 도움 없이도
정보들이 기억이 형성된다.
가상 연상 회로를 작동

"MTL": medial Temporal lobe
(해마 밖영역)



A와 C는
정보를
제공하게
안된다.



"B"라는 단어가
A와 B를 불러오고
A, B, C의 단어가
MTL의 기억을
불러온다.

1차 가상 → 연상 가상
해마

: 배경을 신경 자극으로
바꾸는 것이 "해마"이다.

무의미한 배경 자극을
맥락적으로 만들어
의미를 형성한다.

배경을 전경화하여
하나의 장면을 만든다.

해마에서 공간의 기억을
만든다. 그곳이

PPA (para hippocampal
place Area) 이다.

런던의 택시기사의
해마가 커져 있었다.

해마 ⇒ 공간 기억
(공간)

(언제?)의 대한 기억

신경 기억은 전두엽 (PFC)에서

MTL 기억이 된다.

신경 (이름) 기억은 시간과 공간의
기억이 있어야 한다.

시간과 공간의 기억이 일련을 만든다.
정확한 기억 위치 (brain mapping Area)는
사람마다 다르다.

연결된 동원하다.

기억

감각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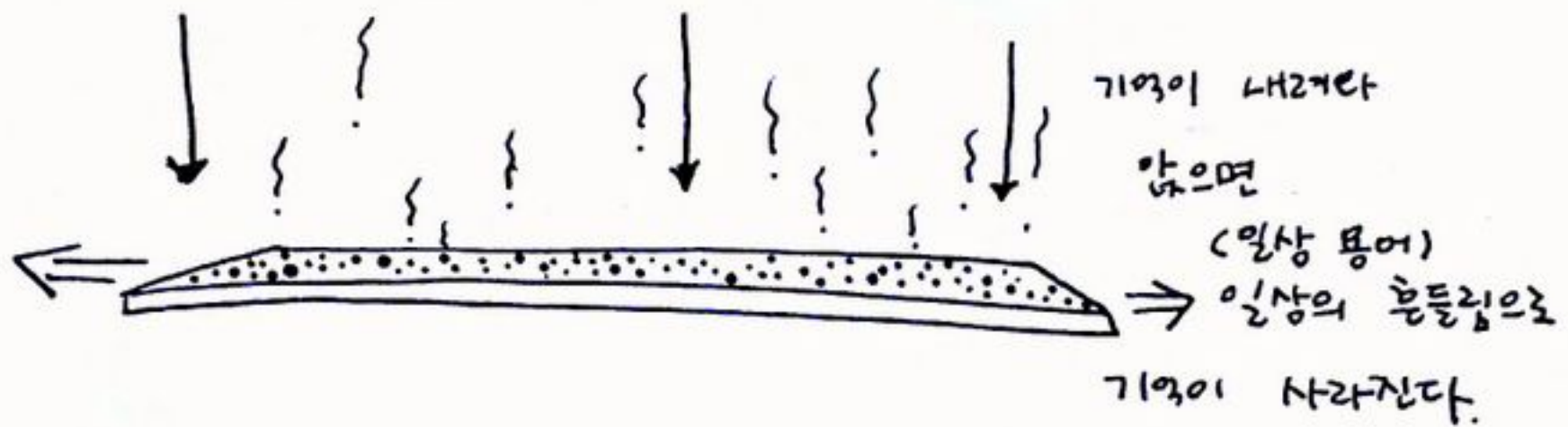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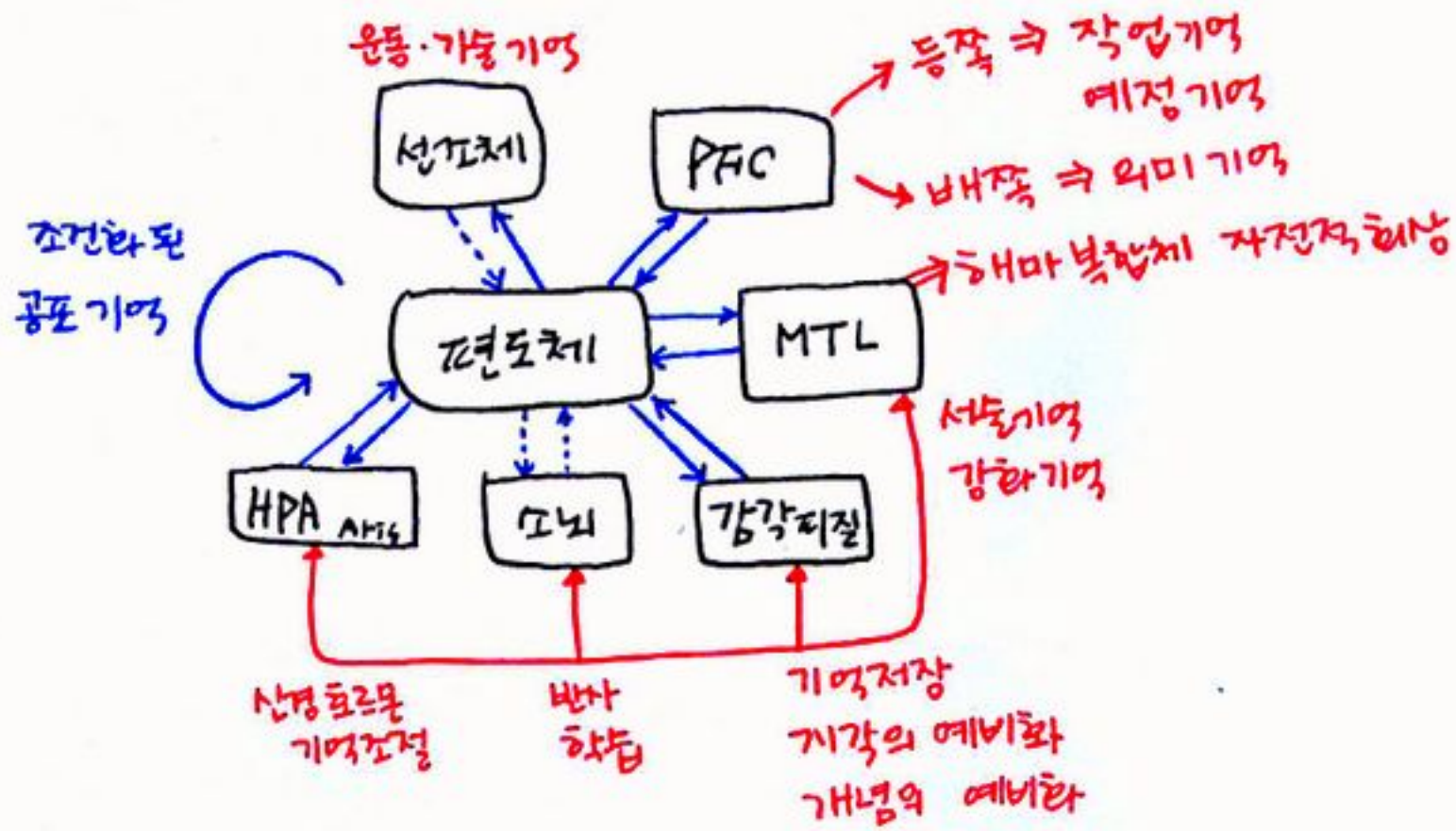
- A -

- B -

기억의 수식적 표현

"호는 사람이 기억으로도 추억과 기억이 떠오른다. 조금 열린 창틈으로도
새싹이 보이는 것과 같다. 차체에 들어가 손을 뻗으며 많은 세속비누의
향기가 라지를 끌어 온다. 속 향기가 어렸을 적 추억을 끌어오는 것과
같다."





공부하는 삶 위에
일상을 몰려라.

그 때 Moscovitch의
Consolidation이 일어난다.

연속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억의 연결을 만들어라.

어떤 분야의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행동 언어"에 익숙해져야 한다.

일례를 들어 - "자전적 회상, 양파는 느낌"
등의 용어 익숙해지면 그 분야에 기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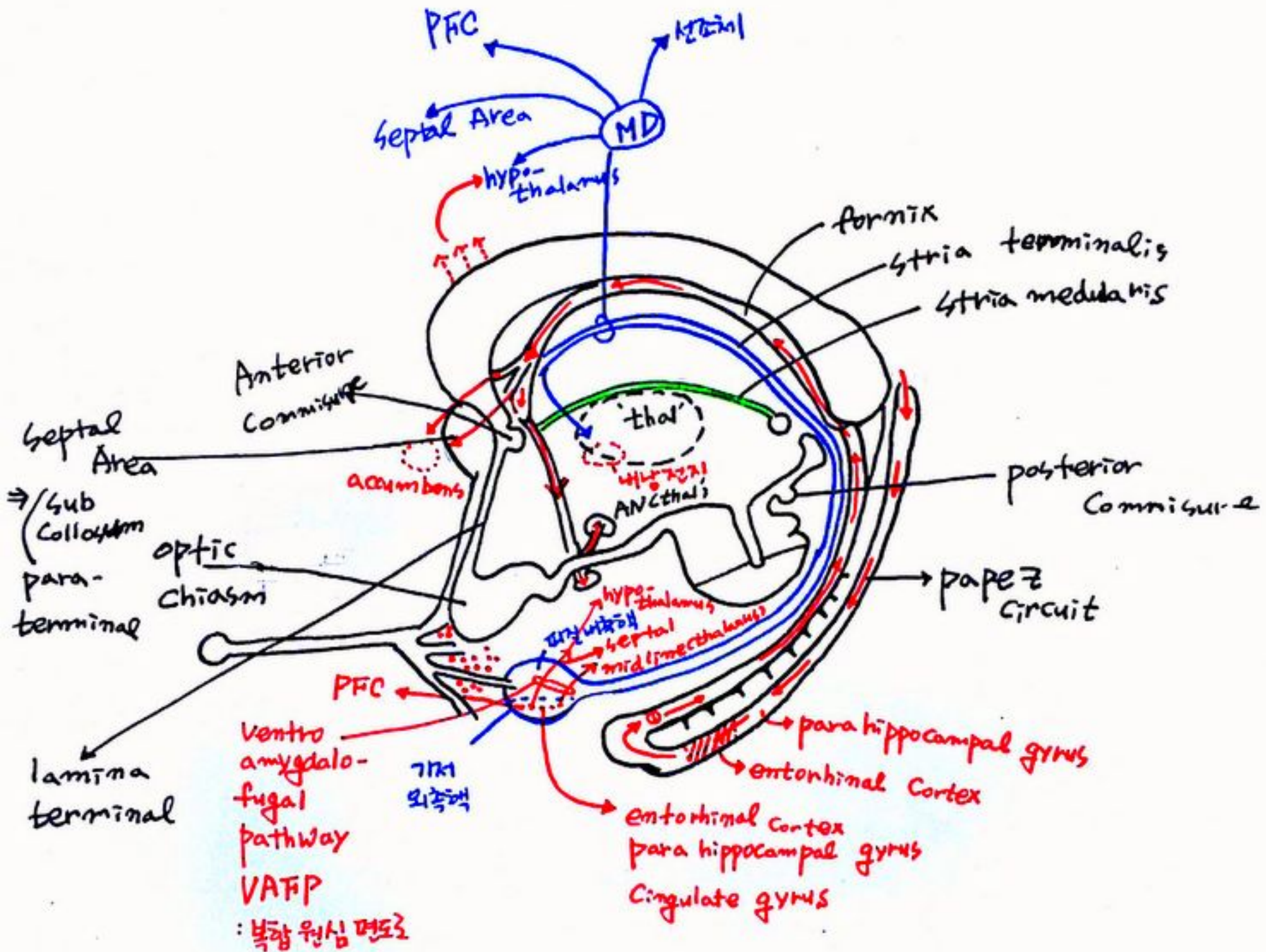
끌어오기가 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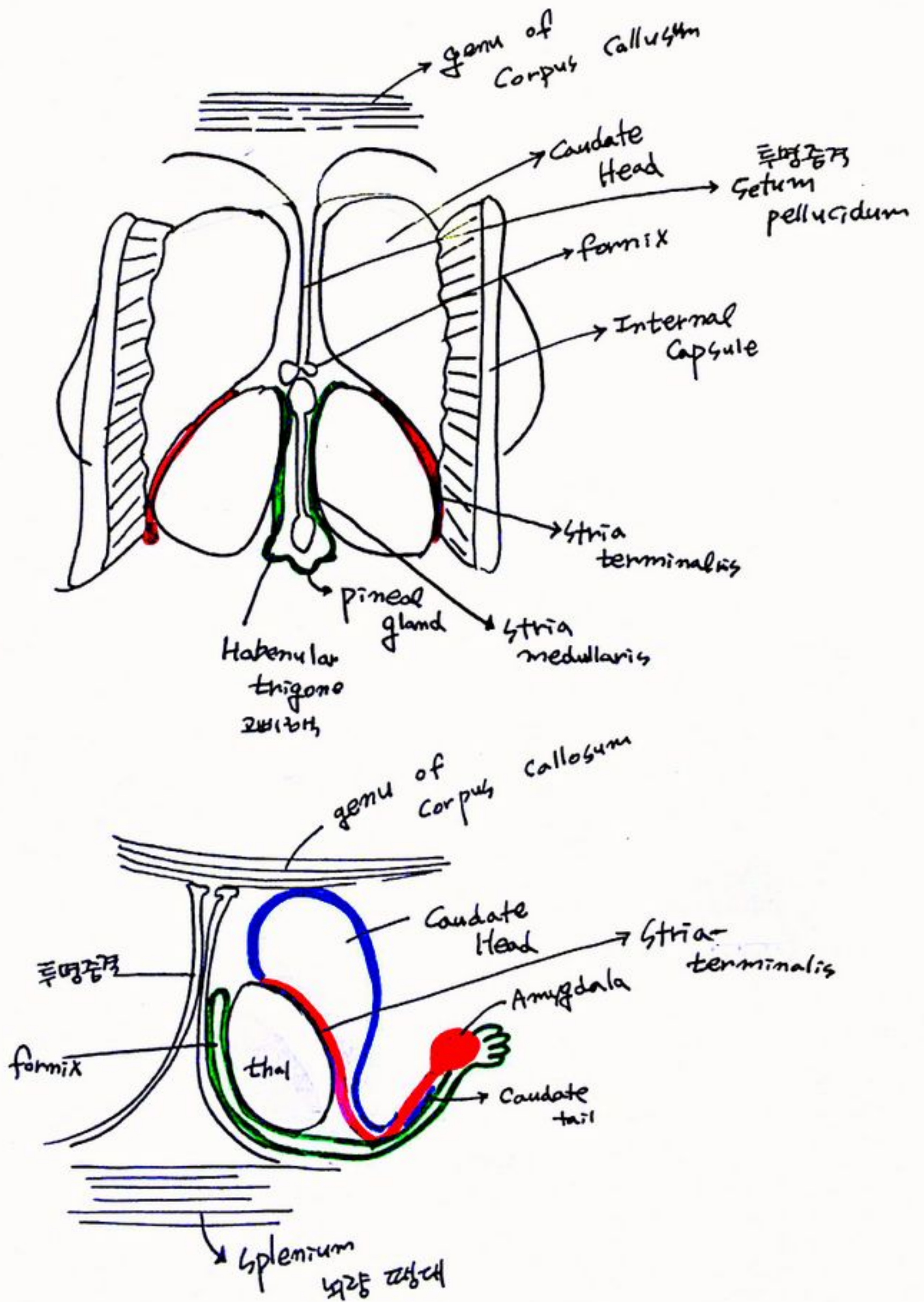
위의 그림처럼 위쪽에 써려 있는 기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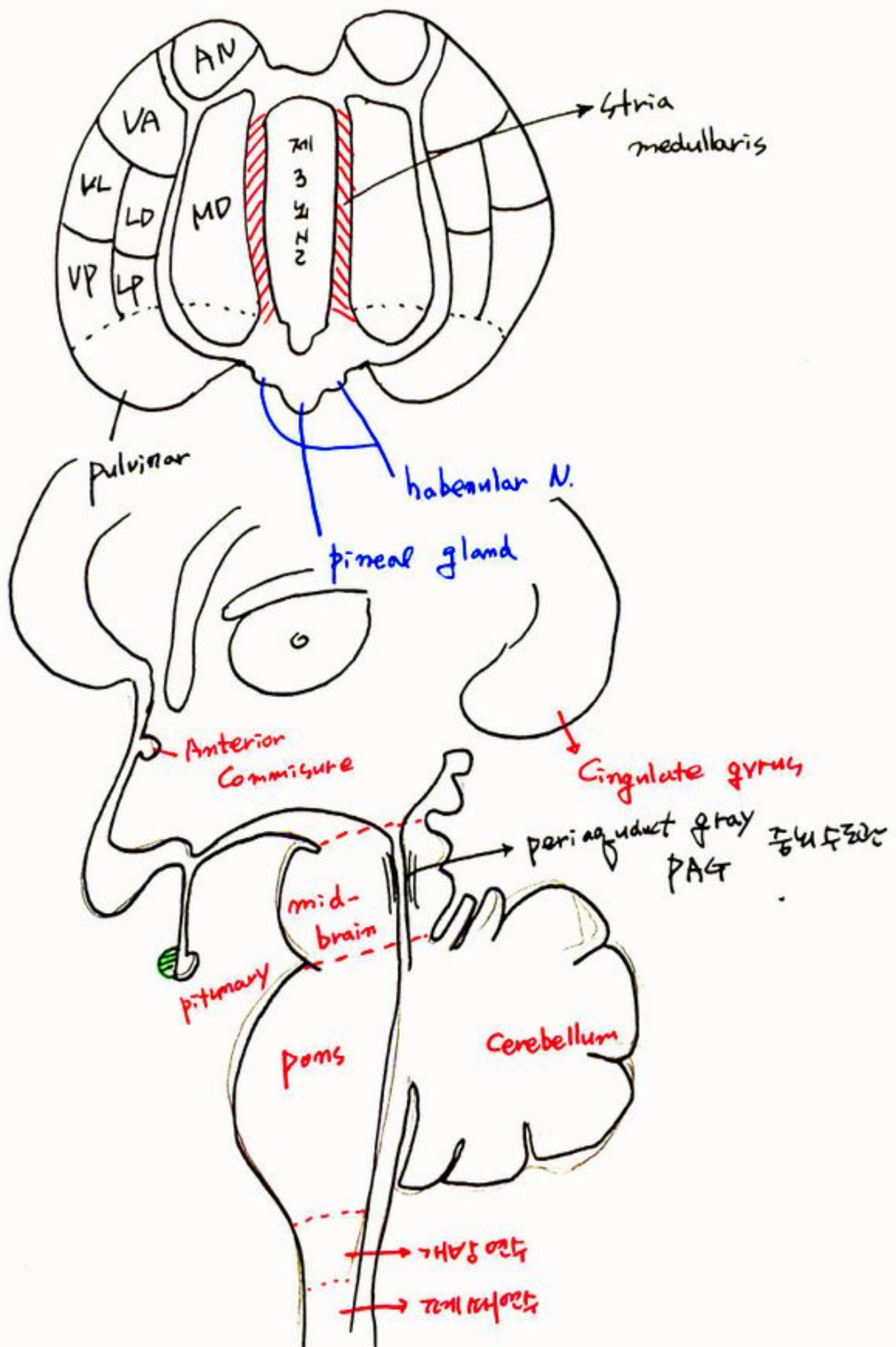
일상분류로 분류 분류한 기억의 상 위에 망상 시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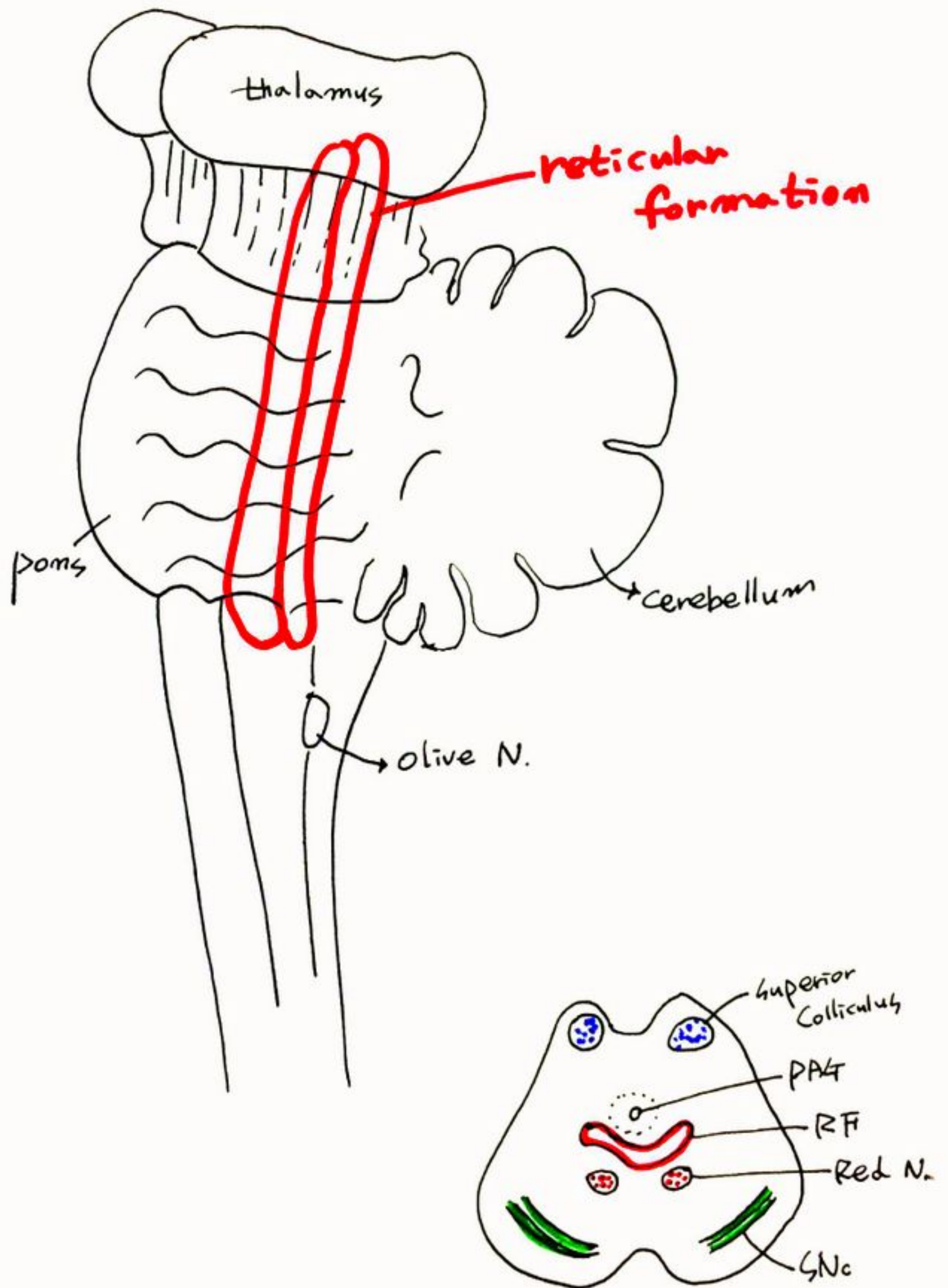
예상 기억 등이 여기에 속한다. 무한은 원로것인지를 신중하게 고.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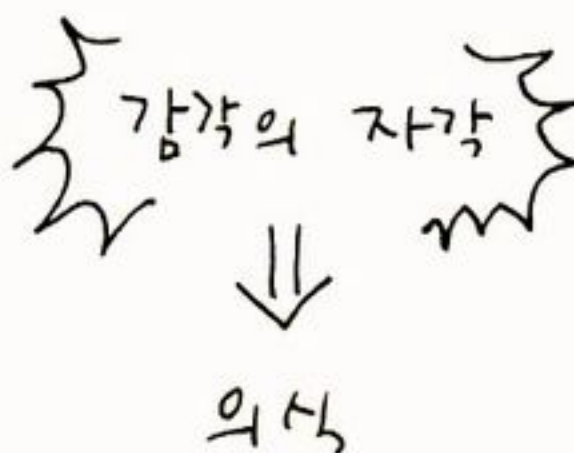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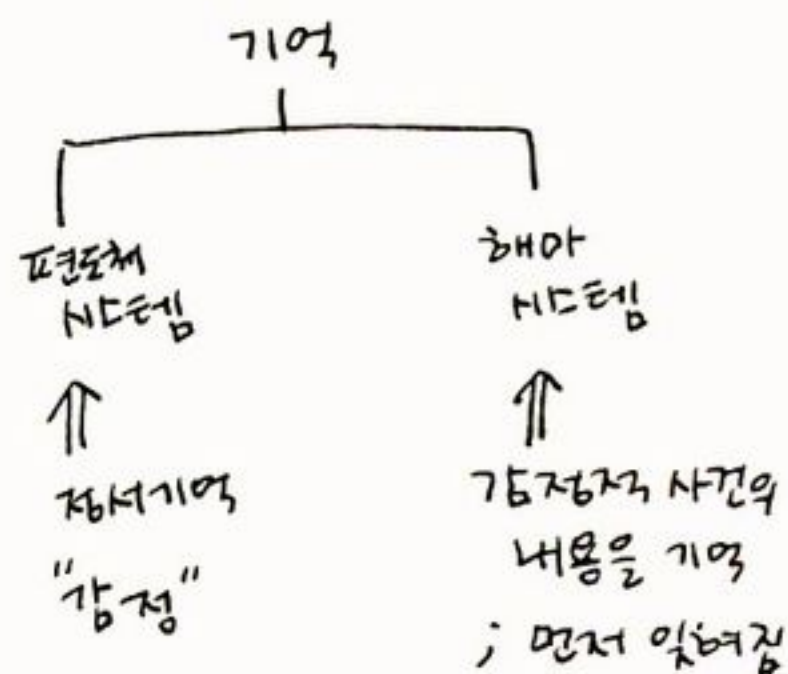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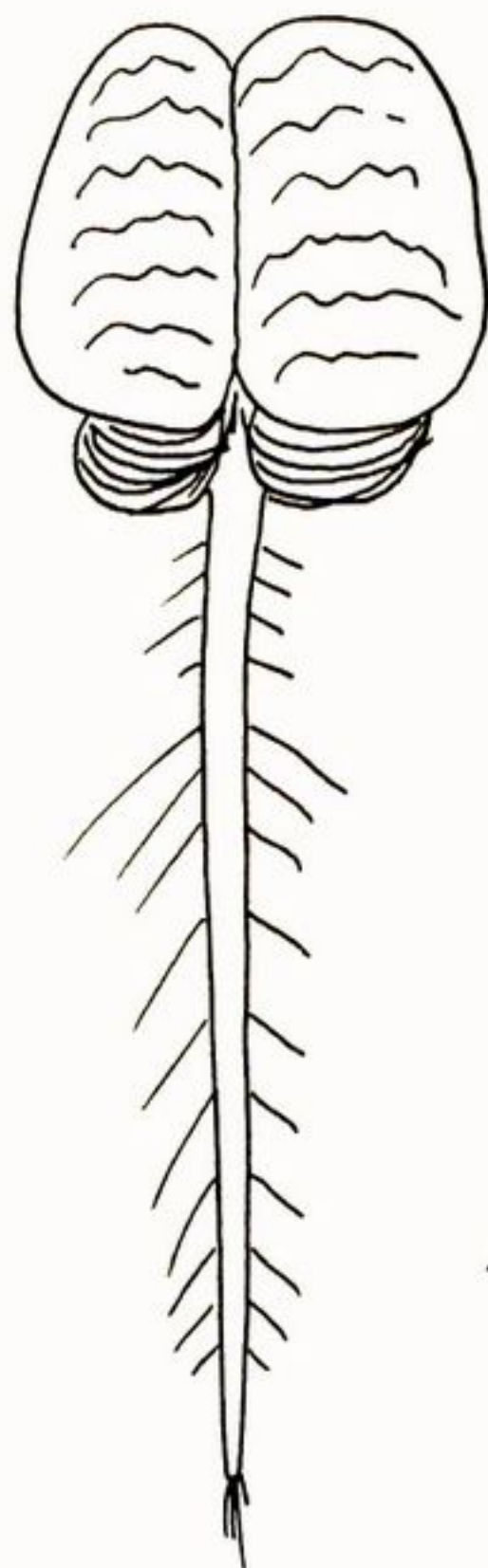
"brain science 에서 5개의 그림을 그려라" 라고 해서 들어가는 정도로 중요한 그림이다. 그림을 그릴 때 story를 만들어 그리도록 한다.











자각의 범주화는 지독한 사건이 모여서 일어난 현상이다.
가상점 사건의 입력이 모여 "자각"이 된다.

인간은 범주화된 심상을 기억한다. 리얼 시스템과 언어의 심상,
가상점 심상은 다르다. 그러나 범주화된 심상을 통해
세상을 모르면 안된다.